2025년 7월 2일 | Global Asset Research

신흥국 전략

인도 이슈 업데이트 : 관세 유예 종료 임박

인도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폭스콘 인도 투자 확대, 중국+1 전략의 수혜국 불변

지난주 아이폰 최대 제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인도 내 전자기기 제조시설 확충을 위한 15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확정했다. 애플은 미중 갈등이 심화되자 중국 의존도를 축소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할 목적으로 인도 생산을 지속 확대해왔으며, 트럼프 2기 출범으로 대중 정책 기조가 더욱 강경해질 것으로 예견되자 재편 속도를 가속화했다. 실제로 2025년 1~5월 인도에서 미국으로 수출한 아이폰 금액은 44억 달러로, 이미 2024년 한 해 전체 수출액인 37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번 투자 소식은 인도의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부상 중인 전자기기 생산 및 수출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이는 단순히 한 기업의 투자 소식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제조사들이 중국+1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인도를 선택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판단된다.

미국 관세 유예 종료 임박, 협상 결과가 공급망 이전 지속 여부의 핵심 변수일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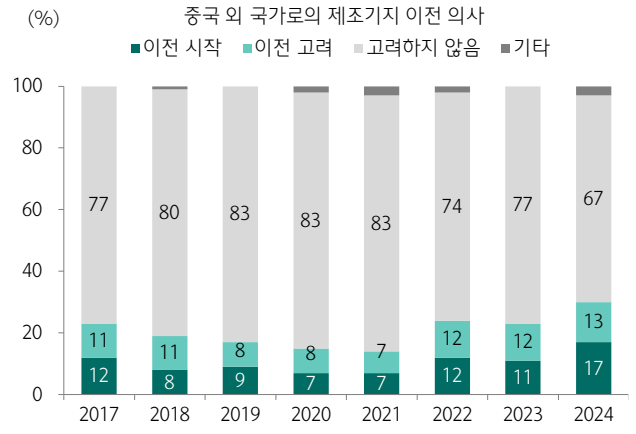
한편, 인도로의 공급망 이전 흐름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곧 발표될 미국과의 무역협상 결과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 상공회의소 설문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의 38%가 대체 생산기지로 신흥 아시아를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와 베트남은 이미 생산 거점으로서 경쟁력을 입증한 국가로, 신흥 아시아 중에서도 유력한 후보로 평가된다. 두 국가 모두 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인도가 베트남보다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베트남이 미국 측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미국과 중국이 30% 관세율에 한시적으로 합의한 점을 고려할 때 이보다 낮은 수준에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미국이 부과한 고율 관세의 목적이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을 차단하는 데 있는 만큼, 관세를 10%까지 낮추는 합의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최종적으로는 25% 수준에서 협상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인도는 중국 우회 수출 리스크에서 자유롭고,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로 평가받고 있어 10%의 관세 협상도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해당 가정이 현실화될 경우, 인도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함에 따라 제조업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협상 결과가 우호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경제 및 증시에 지속적인 성장 모멘텀을 제공하는 전환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Analyst 김근아 geunak@hana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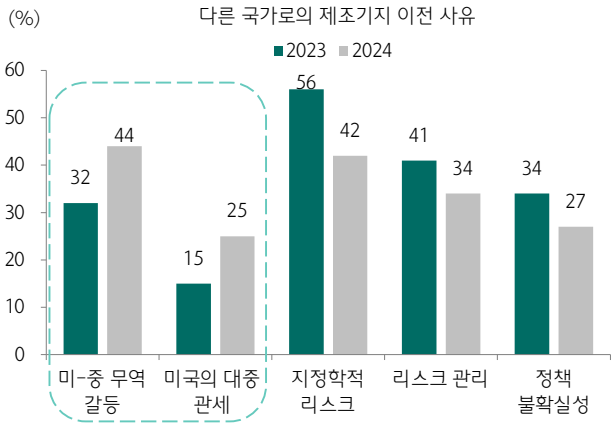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 미 상공회의소 서베이 : 중국 외 국가로의 제조기지 이전 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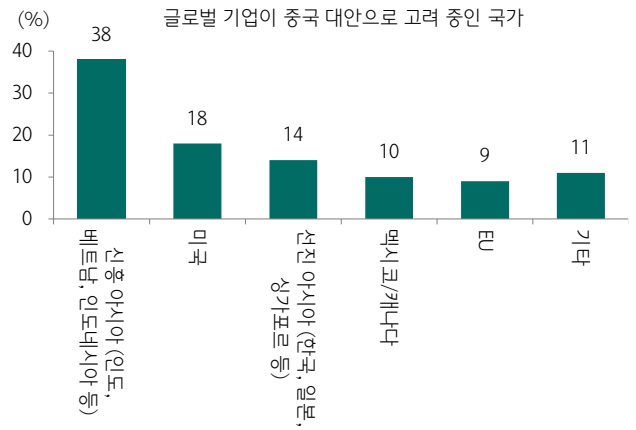
자료: AmCham, 하나증권

도표 2. 다른 국가로의 제조기지 이전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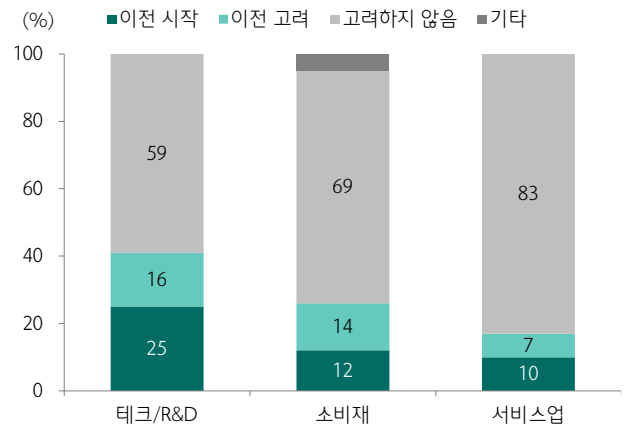
자료: AmCham, 하나증권

도표 3. 미 상공회의소 서베이 : 중국 대안으로 고려 중인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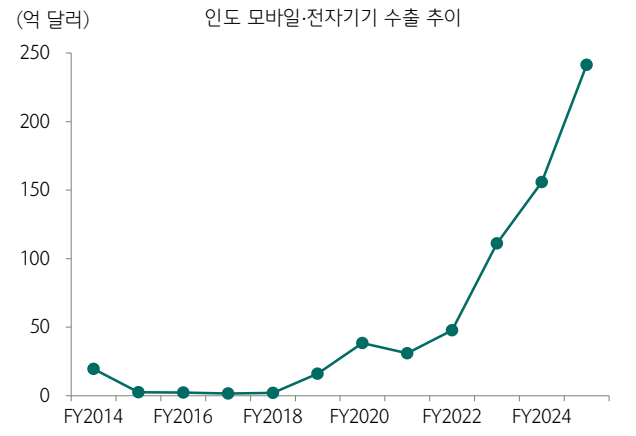
자료: AmCham, 하나증권

도표 4. 미 상공회의소 서베이 : 산업별 제조기지 이전 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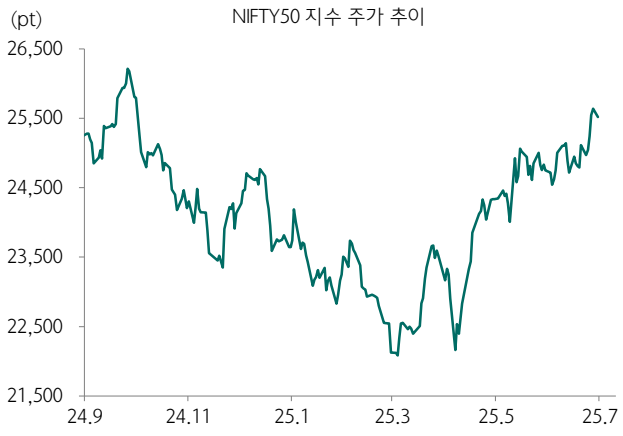
자료: AmCham, 하나증권

도표 5. 인도 모바일 및 전자기기 수출 추이 : FY2025년 급증



자료: Government of India, 하나증권

도표 6. 인도 NIFTY50 지수 주가 추이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